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가톨릭교육의 역할*

- 가톨릭교육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

김 경 이

가톨릭대학교

〈요 약〉

양극화 이슈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양극화 현상에 대한 가톨릭 사회교리의 가르침을 탐구하고, 양극화라는 상황에서 가톨릭 교육자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극화 현상이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양극화라는 사회 문제에 대한 가톨릭 사회교리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셋째, 가톨릭 사회교리에 바탕을 둔 가톨릭 교육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연구 방법론은 문헌연구로서 관련되는 선행연구와 가톨릭 사회교리 문헌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가톨릭 사회교리 문헌 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양극화 원인은 다음과 같다.: 배척의 경제. 돈의 우상화, 지배적인 금융시스템, 불평등을 심화하는 폭력성과 문화적 도전들이었다.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가톨릭 교육자의 역할로 제안하는 것은 가톨릭 사회관, 연대성, 공동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고, 자기 초월적 대화 실천, 친교의 교육학 확대, 일치를 위한 연대, 가톨릭 교육의 정체성 확립, 책임감에 대한 교육의 실천이다.

핵심주제어: 양극화, 가톨릭 사회교리, 정의, 공동선, 연대성, 가톨릭교육, 가톨릭교육자

* 본 연구는 2016년도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2016년 11월4일, 선문대학교)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I. 서론

오늘날 사회 전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polarization 현상은 집단 간의 분리가 극단적이어서 한 사회 내에 서로 다른 두 집단이 서로를 배척하고, 분리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양극화의 사전적 의미는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진다.’로서 그동안 경제 영역에서 많이 논의 되어왔다. 즉 경제적 소득 수준의 격차가 심화되어 중간 부분이 감소되거나 해체되면서 이질적인 양극단이 확대되는 상태를 말한다. 경제적 양극화는 교육, 주거, 의료혜택과 여가 활동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의 양극화를 낳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오늘날 양극화 현상은 경제적 양극화 뿐 아니라 고용 상황, 성, 인종, 연령, 정치적 이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종교 간의 갈등도 양극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갈등, 종교 자체에 대한 왜곡과 배척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 개념과 영역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점은 양극화 현상이 사회 갈등을 심화시켜 공동체성을 훼손하고 평화를 깨트린다는 점이다.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이 악화되어 비인간화되는 것은 이를 외면한 또 다른 집단의 삶도 황폐화 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 연구에서는 양극화라는 비인간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가톨릭 사회교리에 바탕을 두고, 가톨릭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톨릭교육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는 교육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육, 복음화를 실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톨릭교육에는 교리교육, 신앙교육, 가톨릭 종교교육으로 불리는 교육과 가톨릭학교의 교육을 포함한다. 가톨릭학교는 “그리스도교의 안목을 지니며, 교회의 선교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적 특성을 지닌 학교”¹⁾를 일컫는다. 가톨릭교육자라 할 때 그들은 가톨릭신자 부모, 교리교사와 교회의 여러 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과 일반 학교의 가톨릭신자 교육자들을 포함한다. 이들도 자신의 교육 활동 안에 가톨릭의 인간관, 사회관,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가톨릭교육의 우선적 역할은 양극화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분열, 배척, 소외, 갈등이라는 사회적 악을 싫어하고 이러한 속성을 담고 있는 사회현상과 제도를 구별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데 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즉 공동선과 연대성을 바라며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양극화된 사회에서 교육의 우선된 과제는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옳은 일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교육 활동은 양극화란 무엇이며 양극화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인식하며 살도록 일깨우는 것에서

1)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한국가톨릭학교교육헌장」(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1.1항.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공동선과 연대성을 가르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가톨릭 교육은 다양한 영역의 교육 활동 안에서 양극화 문제를 일깨우고 공동선을 위한 삶을 살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다. “가톨릭 교육에서는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을 돕고 존중하고 복돋워 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깨워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심 없는 연대성을 지니고 경제와 금융에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윤리로 되돌아 갈 것을 권고합니다.”²⁾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가톨릭교육의 역할은 제도적 영역과 교육자의 교육활동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영역이란 교육기회와 결과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의 제도적 영역을 말한다. 교육기회와 결과의 양극화는 그 자체가 교육 양극화 현상이자 경제적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가톨릭교육기관의 입학제도, 장학금 제도,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교육과정 제도적 정비 그리고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처 등을 통한 역할 수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교육활동 영역이란 가톨릭교육자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즉 가톨릭교육의 맥락에서 양극화라는 사회 현상과 원인에 대해 인식하고 가톨릭교회의 권고를 반영한 역할 수행을 뜻한다.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의 제도적이고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글은 가톨릭교육자의 역할과 교육활동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교육자이다. 가톨릭 교리교육에서도 교회의 교육방법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 자체로 살아 있는 교리 교육이다.”³⁾라고 한다. 파커 팔머는 “교사는 자기 자신을 가르친다.”고 하며 교육자의 역할과 교육자의 성찰을 강조한다. ‘걸어 다니는 교과서’라고 불리는 교사는 그 자신이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시민윤리 교육의 맥락에서 스트라이크도 시민윤리를 가르칠 때 설교보다는 교사의 시범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한다. 스트라이크는 이를 일치성 주장(the congruence argument)이라고 부르며 “시민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는 자신의 인격과 행위, 학습의 조직 속에서 시민윤리를 시범 보여야 하며, 모든 일은 시민 윤리의 원리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일치성 주장에 전제된 가정은 시민윤리는 설교보다는 시범과 실행에 의해 가르쳐진다는 생각이다.”⁴⁾ 교육자, 교육공동체의 삶 자체가 교육의 내용이자

2)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11.26.)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58항.

3) 교황청 성직자성, 『교리교육총지침』(General Directory for Catechesis, 1997.8.11.)(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141항.

4) Strike, K. A. The Ethics of Teaching in Current R(ed). A Companion To The Philosophy of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할 때, 이 글에서 논의의 범위를 교육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한하는 것이 연구의 한계가 되기도 하지만, 교육에서 교육자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을 생각한다면 교육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인 실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자는 그 자체로 교육내용이며 방법이기 때문이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현상이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양극화 문제와 관련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셋째, 가톨릭사회교리를 토대로 한 가톨릭 교육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에 대한 탐색은 양극화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교육에서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 선정에 대해 통찰을 줄 것이라고 본다.

연구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사회교리 방법론인 관찰, 탐색, 실천⁵⁾의 세 단계를 적용한다. 이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방법론으로서 사회교리 실천에서 적용하도록 교회가 권고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회교리 방법론⁶⁾의 첫 번째는 관찰의 단계이다. 이는 실제 상황을 두루 관찰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르침에 비추어 그 상황을 면밀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시대와 장소의 특성에 전통 규범을 적용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판단하는 단계로서 사회문제를 사회교리의 원천이라는 빛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이 현상은 사회 현상과 이 현상이 함축하고 있는 윤리적 측면에 관하여 선포해야 할 판단을 결정하는 것이다. 셋째, 실천은 판단한 대로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양극화 현상에 적용하면 우선 출발은 양극화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관찰한다. 다음은 판단의 단계로서 가톨릭 사회교리를 가지고 양극화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다. 양극화 현상에 내재된 비윤리적인 측면을 찾아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셋째 실천의 단계는 양극화라는 상황을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 가톨릭교육자가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Education. Malden. M.A(2003): Blackwell Publishing Ltd. 520쪽을 .홍은숙. 「교직관에 따른 전문직 교원윤리의 성격 재음미」 『교육철학연구』33(3)(한국교육철학학회, 2011), 189쪽에서 재인용.

5) 교황 요한 23세, 『어머니요 스승』(MATER ET MAGISTRA, 1961.5.15.)(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36항. 사회교리 방법론은 회칙 『어머니요 스승』에서 구체화되었고, 『사목헌장』과 그 후속 문헌에서 적용되는 사항이다.

6) 같은 글.

II. 양극화 현상에 대한 관찰

1. 양극화 개념에 대한 이해

문제의식을 갖는 것, 그리고 문제를 창출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첫 걸음이다. 사회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양극화 현상과 집단 간 배척이 발생한다 해도 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양극화를 인식하는 데는 주관적 심성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⁷⁾ 경제적 양극화, 교육기회의 양극화 현상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배제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도 시작되지 않을 것이며, 효과적인 교육도 기대하기 어렵다.

양극화 논의는 소득의 양극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려는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경제학자에 따르면 양극화는 어떤 분포에서 중간층이 소멸하면서 상층과 하층 양 극단이 두터워지는 현상인데, 단순히 극단 층이 존재한다는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극화의 경향성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서 집단 내부적으로는 동질성의 정도가 더욱 커지고, 반대로 집단 간에서는 이질성이 확대되는 과정인 것이다.⁸⁾

사회양극화는 흔히 사회적 분리(social segregation)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현상을 수반하며 사회 전 분야에서 복잡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경제적인 분리(socioeconomic status segregation)를 발생시키며, 사회경제적인 분리는 거주지 분리(geographical segregation)를, 이는 교육적 분리(education segregation)로 이어진다.⁹⁾

양극화 현상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기준으로 논하는 것이고, 특정한 극(poles)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현상으로서 집단의 집락화 현상(clustering of attributes)으로도 설명된다. 집락화란 소득, 부, 일자리, 권리 등과 같은 특정 속성이나 특징이 같은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끼리는 비슷해지고 다른 집단 구성원과는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¹⁰⁾ 또한 양극화는 특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동시에 시간에 따른 역동적 과정을 뜻한다.

즉 양극화란 사회구조적 모순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사회적 결과물이며 비인간화된 사회의 모습이다. 양극화는 동질적이지 않은 집단에 대해 환대하지 않는 사회이며 배척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7) 손준중, 「교육 양극화의 개념, 유형, 동인에 관한 탐색적 논의」 『한국교육학 연구』12(2)(안암교육학회, 2006), 42쪽.

8) 이두휴, 「도시와 농촌간 교육양극화 실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21(2)(한국교육사회학회, 2011), 123쪽.

9) 손준중, 앞의 글, 37쪽.

10) 위의 글, 34쪽.

양극화는 배척을 의미하고, 배척은 인간을 버린다. 배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배척된 이들은 더 이상 사회의 최하층이나 주변인이나 힘없는 이들이 아니라 사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착취된 이들이 아니라 쫓겨난 이들, 버려진 사람들입니다.¹¹⁾

배척과 불평등이 조장된 양극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 구조와 현상이고 비인간화된 사회이다. 가톨릭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비복음적이고 반복음적인 삶이다. 양극화는 “불의한 사회 구조이다. 그것은 언제나 분열과 죽음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¹²⁾ 따라서 교육의 맥락에서는 양극화된 사회 현상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대의 징표를 읽는다는 것은 이 현상으로 인해 누가 소외되고, 누가 가려진 상황에 처하는가를 보게 한다.

양극화는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수입과 생계의 방도를 확립하지 못한 다양한 사람들, 즉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한 상인, 소규모 자영업자, 청년 실업자, 가계를 책임지는 여성 등이 삶에서 계속 주변화 되는 현상이며, 동시에 보다 특권화 된 기술과 지식을 갖춘 전문직 및 대기업 근로자들은 사람에서의 우위를 공고히 하여 보다 많은 권한과 이윤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과정이다. 양극화는 그 성격상 다차원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양극화는 거주지, 자발적 결사체, 직업 그리고 언어 등과 같이 다양한 수준과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들 영역에서의 사회적 분리는 정보, 태도, 취향, 교육적 욕망, 혼배를 더욱 가속화하게 된다. 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반영하여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적극적으로 사회적 분리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¹³⁾

인용 글에서 보듯 양극화는 경제적인 영역 뿐 아니라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속도가 매우 빠르고 범위가 훨씬 넓고 정도가 심하다는 특징을 지닌다.¹⁴⁾

한편 집단의 집락화 현상은 양극화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날 다양한 집단에서 집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극화의 기둥(multi-poles)이 존재하는 것이다.¹⁵⁾ 이는 중간층이 없어지는 양극화의 개념이기 보다는 다양한 집단들이 이질 집단과의 분리가 견고하면서 집단 내부의 결속이 강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다룰 때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극화의 현상이 나타나는 즉 다극화 현상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양극화’는 구체적인 예가 된다. 오늘날 획득된 정보의 양과 정보 습득 속도는

11) 『복음의 기쁨』, 53항.

12) 위의 글, 59항.

13) 손준중, 앞의 글, 38쪽.

14) 이두휴, 앞의 글, 122쪽.

15) 손준중, 앞의 글, 36쪽.

또 하나의 자원으로 기능한다. 디지털 기기는 소통과 정보 획득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세대와 교육 정도에 따라 디지털 활용과 접근에 차이가 있다. 급속한 속도로 신제품이 개발되어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나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통신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집단들은 소통의 도구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디지털 기기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활동으로부터 배제되는 집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디지털 양극화’ 현상이라 부른다. 가톨릭은 디지털 양극화와 관련한 사회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인 소통 수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조적이거나 경제적 혹은 개인적 이유에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거나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인터넷과 SNS 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이나 특정 계층이 배제되지 (디지털 양극화) 않도록 교회는 항상 모든 사람이 사회적인 소통 수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아울러 독점적인 운영과 이념적인 통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나이트 사람, 실업자,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 등이 배제된다면,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양극화는 의사소통의 과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나 특정 계층이 정보와 교육과 발전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¹⁶⁾

이 시대에는 경제적 양극화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단절과 배척이 있다.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과거에 비해 편리해지고, 풍족해지고 있지만 그 혜택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인터넷 최강국을 자랑하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모든 이에게 교육 기회가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이로부터 배제되는 집단도 있는 것이다.

2. 양극화의 원인

경제적 영역에서 양극화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세계화, 지식 기반 경제,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키는 금융제도 등이다. 한국의 경우 1997년 IMF 경제 위기가 경제적 양극화의 결정적 계기로 간주되고 있다. 소득, 주거환경, 고용, 교육 등의 양극화 현상에는 경제적 환경 요인이 작용했지만 한국 사회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지적하는 논의에도 주목해야 한다. 김원석¹⁷⁾은 한국 사회 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 정의롭지 못한 문화적 인정-무시 질서가 작용한다고 본다. 즉 “학력 및 학벌, 성별에 따른 인정

16) YOUCAT 재단, 『가톨릭사회교리서 DOCAT: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젊은 친구들에게 보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편지』(가톨릭출판사, 2016), 40항.

17) 김원석, 「한국사회 양극화와 다차원적 정의」 『사회와 철학』26(사회와 철학연구회, 2013), 233쪽.

과 무시 질서, 폐쇄적인 ‘우리’ 의식을 배경으로 하는 이주민, 새터민 등에 대한 무시가 한국사회 양극화를 추동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의 인정-무시 질서는 고유한 형태의 문화적 차별을 야기하는 동시에 정의롭지 못한 분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대의 징표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권고”¹⁸⁾하면서 교회가 제시하는 현대 사회의 도전에서도 양극화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비인간화의 과정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도전¹⁹⁾이다.

첫째, ‘배척의 경제’²⁰⁾이다. 배척의 경제는 불평등의 경제로서 사람을 죽이는 경제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배척과 불평등의 경제를 지닌 사회의 단면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배척과 불평등 경제는 사람을 죽일 뿐입니다. 나이트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주가 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 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배척입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경쟁의 논리와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 놓이게 되면서 힘없는 이는 힘센 자에게 먹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배척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자리도 희망도 현실을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²¹⁾

배척의 경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에 분명한 선을 그어 강조하는 만큼 “배척과 불평등의 경제는 안 된다.”²²⁾를 강조하며 의무로 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배척은 관계의 개념이다. 배척하는 이가 있고, 배척된 이들이 있다. 경제적 부를 소유한 ‘배척하는 이’들은 ‘무관심의 세계화’를 펼치며 배척된 이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그것도 자신들이 아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²³⁾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절규 앞에서 함께 아파할 줄 모르고 다른 이들의 고통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그들을 도울 필요마저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지 우리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²⁴⁾

18) 『복음의 기쁨』, 51항 참조.

19) 위의 글, 51항.

20) 위의 글, 53항.

21) 위의 글, 52항.

22) 위의 글, 53항.

23) 위의 글, 54항 참조.

24) 위의 글, 54항.

가톨릭교육자는 ‘배척의 경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일차적으로는 ‘배척의 경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에 책임의식을 갖고 무관심의 세계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와 무관심의 양극화를 관찰·판단·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돈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우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곧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의 도전이기도 하다.²⁵⁾ 오늘날 사회는 돈이 자신과 사회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인간존중이 더 이상 최우선 된 가치가 아닌 것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보다는 돈에 대한 물신주의 가치가 최우선이 되어 버렸다. 돈을 위해서라면 인간적 가치는 얼마든지 우선된 자리를 내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세대가 되어 버렸다.

소수의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동안, 대다수가 이 행복한 소수가 누리는 번영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시장의 절대 자율과 금융 투기를 옹호하는 이념의 산물입니다. 이 이념은 공동선을 지키는 역할을 맡은 국가의 통제권을 배척합니다.²⁶⁾

2015년 청소년 정직지수와 윤리의식에 대한 조사²⁷⁾에 의하면 응답자의 56%가 ‘10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응답하였다. 돈에 대한 물신주의가 인간적인 삶의 가치에 대한 윤리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셋째는 “봉사하지 않고 지배하는 금융제도”²⁸⁾이다. 오늘날 금융제도 안에서 윤리적 특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제도가 부유한 이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돈을 우선시 하는 사회는 윤리를 불편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윤리는 돈을 소유하려는 활동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윤리는 돈을 소유하려는 이들에게 시장의 범주를 벗어나 관계성을 가진 인간 존재로서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하여 공동선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싶어 한다. 그런 현대인에게 교회는 다음과 같이 강한 어조로 권고한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²⁹⁾

넷째는 “폭력을 낳는 불평등”³⁰⁾이다. 폭력이 행사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사

25) 같은 글.

26) 위의 글, 56항.

27) 2015년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 센터’가 2015년 9월부터 전국 1만1000명을 대상, 유효 응답자 4820명을 분석 한 설문조사 한 결과

http://www.cleankorea.net/bbs/board.php?bo_table=sub04_02&wr_id=6

28) 『복음의 기쁨』, 57, 58항.

29) 성 요한 크리스토포, 「라자로에 관한 강론」, 『복음의 기쁨』. 57항에서 재인용,

회구조적인 악에서 비롯된 폭력은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 뿐 아니라 그 사회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불평등에서 비롯된 폭력에 대해서는 집단적 성찰이 필요하다. “종종 가난한 이들과 못사는 민족들이 폭력을 유발한다고 비난을 받지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온갖 형태의 공격과 분쟁은 싹을 틔울 토양을 찾고 언젠가는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불평등한 사회는 그 자체가 불의하다. 불의는 불의를 낳는데 불평등한 사회가 폭력을 낳는 것은 언제나 폭력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불의는 언제나 분열과 죽음의 잠재력을 지닌다. 악을 예견할 수 있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문화적 도전”³¹⁾이다. 문화적 도전의 측면이 다양하지만 ‘자기 고유의 주관적 진리를 고집하는 문화’,³²⁾ ‘고유한 가치를 잃은 일시적인 것을 우선시 하는 문화’,³³⁾ ‘종교와 삶을 이원화하는 세속주의 문화’³⁴⁾에 대해 살펴본다.

‘자기 고유의 주관적 진리를 고집하는 문화’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해와 바람에 치중하여 자신을 넘어서는 공동 이해를 계획하려 하지 않는 문화를 말한다. 이는 곧 사람들의 삶이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머문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극화가 배척과 배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외면의 한 형태라고 한다면 이러한 폐쇄적인 자기중심적 경향은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내적 생활이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한다.’³⁵⁾

‘고유한 가치를 잃은 일시적인 것을 우선시 하는 문화’란 문화적 뿌리가 급격하게 훼손되고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으나 윤리적으로는 빈약해 지고 있는 문화를 말한다. 이는 오늘날 사회에서 외향적, 직접적, 가시적, 즉각적, 피상적, 일시적인 것을 우선시 하는 측면을 보고 일컫는 것이다. 즉 ‘종교와 삶을 분리 이원화하는 세속주의 문화’란 신앙과 교회를 삶에서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제한하고 초월성을 거부하는 문화를 일컫는다.

세속화는 개인과 집단의 죄의식을 약화시키고, 상대주의를 확산시킨다. 방향 감각의 전반적인 상실을 가져왔고, 특히 변화에 민감한 사춘기와 청년기에 그러하다. 미국 주교들이 올바로 파악한 대로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객관적인 윤리 규범의 존재를 주장할 때 우리 문화 안에는 그러한 가르침이 부당하다고, 곧 인간의 기본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대개 도덕적 상대주의의 형태로 나오며, 모순되게도 개인의 절대 권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특정한 편견을 부추기는 것처럼,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30) 위의 글, 59, 60항.

31) 위의 글, 61-67항.

32) 위의 글, 61항.

33) 위의 글, 62항.

34) 위의 글, 64항.

35) 위의 글, 2항 참조.

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도덕적 문제를 매우 피상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고, 도덕적 가치들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는 길을 제시해 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³⁶⁾

이와 같은 세속화와 세속화로 인해 잃게 되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교회의 권고는 가톨릭교육자로 하여금 인성교육 혹은 시민교육의 방향 설정에 대한 성찰을 돕는다.

Ⅲ. 정의의 가치, 연대성과 공동선의 원리로 양극화를 판단하기

이 장에서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가톨릭교육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가톨릭 사회교리 가운데 정의의 가치, 연대성과 공동선의 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사회교리 원리에 대한 고찰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고, 판단의 근거로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즉 교육내용에 대해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회교리는 교회가 시대의 징표를 읽으며 세상과 대화하는 과정이자 대화의 결과물이다. 사회교리는 동시대의 사회 문제에 대해 교회가 신앙과 이성을 통해 권고하는 지혜이며,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현대 사회의 제반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이기도 하다.

1. 가톨릭교육자를 위한 사회 이해

가톨릭 사회관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 본래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이며 관계적 존재라는 가톨릭 인간관을 바탕으로 한다. 하느님의 구원행위는 처음부터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중심에 두고 있으며 또한 공동체적인 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개인이 불림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공동체에 봉사하라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³⁷⁾

제 2차 바티칸공의회는 현대 세계에서 교회의 현존과 활동에 대해 밝히는 『사목헌장』을 발표하였다. 사목헌장에는 가톨릭의 인간 이해 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관계의 존재로서 인간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개인의 진보와 그 사회의 발전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서 드러난다. 사실 인간은 바로 그 본성에서 반드시 사회생활이 필요하므로, 모든 사회 제도의 근본도 주체도 목적도 인간이며 또 인간이어야 한다.³⁸⁾하느님께서 인간을 혼자서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사

36) 위의 글, 64항.

37) 조정환, 「인간의 공동체적인 관계성에 대한 고찰」 『가톨릭신학』16(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09), 66-67쪽.

38) 제2차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Gaudium Et Spes, 1965.12.7.)(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적 결합을 이루도록 창조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또한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다. 구원 역사의 시초부터 하느님께서도 사람들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선택하셨다.³⁹⁾

『사목헌장』에 명시된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이해와 공동체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인간이 부여받은 존재론적 본성이자 소명임을 알려준다.”⁴⁰⁾ 인간은 오직 공동체를 통해서만 참으로 인간이 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서로를 위해 창조된 존재’로서 인간이해는 가톨릭의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기초가 된다.⁴¹⁾

인간의 공동체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톨릭교회는 개인적 차원에서 서로에게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모든 시민은 사회의 공동선에 기여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⁴²⁾ 자신 만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 나갈 때 인간은 참으로 자기 자신이 되고 하느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톨릭의 사회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교육으로 하여금 사회와 교회에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힘써야 함을 강조하게 된다.

2. 가톨릭 사회교리

가톨릭교회는 1891년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를 시작으로 다양한 경로로 정치, 경제, 인권, 노동, 평화, 환경, 생명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어떻게 정의와 공동선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해 왔다. 현대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복음적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과 권고를 계속 이어 오고 있는 것이다.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⁴³⁾이기도 하다.

사회교리는 교도권에서 사회문제에 관련하여 발표하는 모든 가르침을 말하며 여기에는 공의회나 교황뿐만 아니라 교황청이나 주교회의, 개별주교가 발표하는 모든 교지를 포함한다.⁴⁴⁾ 사회교리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가톨릭 신앙에 따라 종교적, 윤리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며 사회에 대한 성찰과 권고를

2012.7.1.), 25항.

39) 위의 글, 32항.

40) 조정환. 앞의 글. 64쪽.

41) 토마스 그룸, *Will There Be Faith*. 조영관·김경이·임숙희 옮김,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4), 362쪽.

42) 같은 글.

43) 박정우, 「가톨릭 사회교리에 비추어 본 생명과 건강 : 인간의 존엄성, 공동선, 연대성과 보조성을 중심으로」 『인격주의 생명윤리』6(2)(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6), 53쪽.

44) 심현주. 「진리안의 사랑과 가톨릭사회론」 『신학전망』168(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0), 15쪽.

제시하는 것이다.⁴⁵⁾ 교회는 사회교리를 통해 신앙인들이 신앙공동체의 일원이자 한 시대의 시민으로서 진리를 실천하는 삶의 방식들을 안내한다.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교육을 행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영역이 통합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교리 교육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실천이 무엇보다 강조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두 발로 움직이는 사회교리”라는 은유를 가지고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다가갈 것을 권고한다.

오늘날 가톨릭 사회교리라고 부르는 것은 19세기에 생겼습니다. 이 시기에 산업화로 인해 잔인한 자본주의 곧 인간을 파괴하는 종류의 경제가 나타났습니다. 양심이 없는 거대 자본가들은 가난한 농촌 사람들이 광산이나 그늘음투성이인 공장에서 중노동을 하며 박봉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태양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처럼 석탄을 실은 수레를 끌기 위해 지하 탄광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현실 참여를 통해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에 대항하는 사회적 정치적 행동들을 발전시켰습니다.⁴⁶⁾

최근 젊은이를 위해 발간된 가톨릭 사회교리서 『DOCAT』에는 교회는 왜 사회교리를 가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인간은 땅에서 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공동체를 지향하는 철저한 사회적 존재이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 정의로운 관계와 불의한 관계를 식별하여 사랑 안에서 정의를 완성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⁴⁷⁾ 사회교리는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과제를 제시한다.⁴⁸⁾ 그 과제는 바로 ‘정의로운 사회적 행동의 의무를 제시하고, 사회적 경제적 혹은 정치적 구조가 복음의 메시지와 모순되는 곳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⁴⁹⁾이다. 그러므로 양극화라는 사회적 불의를 극복하는 데 있어 그 방향성을 사회교리의 원칙에서 찾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사회교리의 원리는 인간존엄성, 공동선, 보조성,⁵⁰⁾ 연대성으로서 이들 원리는가톨릭 사회 교리의 핵심을 이룬다.⁵¹⁾ 이들 원리는 인간존엄성 구현이라는 침해할 수 없는 원칙에 기초한 것이고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의 원리는 궁극적으로 인간존엄성을 구현하는 원리이다. 네 가지 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원리 전체가 사회적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45) 김우선, 「가톨릭 사회교리와 세계화」 『신학과 철학』22(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013), 86쪽.

46) YOUCAT 재단, 앞의 글, 젊은 친구들에게 보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편지 가운데.

47) 위의 글, 22항 참조.

48) 위의 글, 22항.

49) 위의 글, 23항.

50) 보조성이란 개인이나 하위 집단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상위 집단이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위 집단이 개입하는 것은 간섭이지 돕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5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교회교리서』(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서울: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1), 160항.

때문이다.⁵²⁾ 전체 사회교리가 상호연관성⁵³⁾을 가지고 작용하는 경우 네 가지 원리를 통해, 무엇이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지, 무엇이 사회적이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원리는 상호적인 관계에 있고,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작용한다. 연대성의 원리가 충실히 구현되어야 공동선이 성취되며, 보조성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개인의 자율과 성장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⁵⁴⁾

이런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⁵⁵⁾ 그것은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은 타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재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도 사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생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책임을 맡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공동선에 봉사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공동체의 독자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윤리적으로 더 큰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교리는 사회생활의 근본적인 가치도 제시하는 데 진리, 자유, 정의가 바로 그것이다.⁵⁶⁾ 이들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안에 내재되어 있으며 인간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한다.⁵⁷⁾ 사회교리의 원리와 가치는 상호적인 관계에 있으며 사회적 가치는 사회생활의 기본원리들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개인적 덕과 실천과 그에 따라 이러한 가치들에 부합하는 도덕적 자세의 수립도 요구한다.⁵⁸⁾ 이러한 원리들은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조직하고 질서 있게 이끌어 나가는 준거 역할을 한다. 사회교리의 원리와 가치 가운데 아래서는 정의, 연대성, 공동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사회생활의 가치로서 정의

“오늘날 인간과 인간이 지닌 존엄성과 권리의 개별적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의 의도와는 반대로 효용성과 소유의 기준에 따라 배타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⁵⁹⁾이다. 양극화는 정의의 관점에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양

52) 위의 글, 163항.

53) YOUCAT 재단, 앞의 글, 85항.

54) 조현철, 『용산참사 되짚기 : 가톨릭 사회교리의 연대성과 보조성에서 본 한국의 도시 재개발』 『신학전망』 173(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1), 66쪽.

55) YOUCAT 재단, 앞의 글, 86항.

56)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주린 사회교리 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2004』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2006), 197항.

57) 위의 글, 197항.

58) 같은 글.

59) 위의 글, 202항.

극화를 달리 말하면 정의롭지 못한 사회 구조이며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와 평화는 오래 동안 이어져온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신앙 언어인데 성경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하느님과 합당한 관계 맺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오, 사람아,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이것 한 가지 뿐이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미카 6,8)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죄인들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넘치거나 덜함 없이 모든 이가 각자의 공평한 몫을 얻는 것’도 아니다.⁶⁰⁾ 성경에서 정의는 ‘연민어린 어머니’(compassionate mother)라는 의미를 가지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푼다.’⁶¹⁾는 뜻으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돌보는 것을 포함한다. 정의의 가치는 연대의 가치와 함께 가는데 정의가 평화로 가는 우선적인 길이기 때문이다.

정의를 가르칠 때 생각해 볼 격언이 있는데 그것은 ‘최고의 정의는 최고의 불의다 (summum ius, summa iniuria)’⁶²⁾라는 것이다. “이는 정의의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질서의 의의를 감소시키려는 것이 아니다.”⁶³⁾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격언으로서 정의는 정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정의에 더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정의는 사랑을 전제로 한다. 인간관계는 정의의 척도로만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와 우리 시대에 걸친 이 같은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정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정의라는 것이 곧 정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DOCAT』에서도 정의에 자비가 더해져야 함을 명시⁶⁴⁾하고 있다. 자비가 더해진 정의야 말로 사회가 인간적으로 되어 가는데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공동생활을 위한 순수한 법적 정의는 사회 정의보다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입법도 인간의 상호적인 호의를 불러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정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것만을 처벌할 수 있을 뿐 긍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사랑은 공동선, 말하자면 모든 인간의 온전한 복리를 위한 창조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직 호소만 할 수 있지만 정의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위한 공간을 허용하는 정의로운 구조가 중요합니다.⁶⁵⁾

정의는 신앙을 실천하는 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이며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신앙인

60) 조영관 외. 앞의 글. 207-208쪽.

61) 위의 글. 208쪽.

62) 교황 요한바오로 2세, 『자비로우신 하느님』(DIVES IN MISERICORDIA, 1981), 12항.

63) 같은 글.

64) YOUCAT 재단, 앞의 글, 111항.

65) YOUCAT 재단, 앞의 글, 111항.

의 응답이다. ‘정의, 사랑, 신앙’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이 지니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 정당한 관계성이 담긴 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의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정의는 거룩함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비유한다.

토마스 그룹은 가톨릭교육자들을 위한 그의 저서에서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로운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⁶⁶⁾ 그리고 정의는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한 노력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회적 약자의 상태로 만들거나 남겨두는 사회 구조에 의문을 던지고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⁶⁷⁾

『가톨릭교회 교리서』에도 “단체나 개인들이 그들의 본성과 소명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을 실현할 때, 그 사회는 사회 정의를 보장한다. 사회 정의는 공동선과 공권력 행사와 관계된다.”⁶⁸⁾ “사회 정의는 인간의 탁월한 존엄성을 존중함으로써만 이루어 낼 수 있다. 인간은 사회의 궁극 목적이며, 사회는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⁶⁹⁾

토마스 그룹은 가톨릭교육자가 정의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호정의는 개인이나 이익 집단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환에 있어서 정직과 공정함을 필요로 한다. 분배적 정의는 사회의 재화 즉 문화, 경제적 부, 정치적 힘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정의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각 사람들이 공공생활에 참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가는 사회의 책무를 의미한다. 사회정의와 분배적 정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로 하는 것을 얻고 공동선을 위해 공헌할 기회를 가지도록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작용한다. 회복적 정의는 최근에 범죄 및 처벌과 관련되는데 이들의 사회적 복귀에 관심을 두며 특정한 갈등이나 범죄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그 갈등이나 범죄가 가져온 여파를 집단적으로 다루고 해결책을 찾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⁷⁰⁾

4. 공동선의 의미와 가치

공동선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 일치, 평등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그 의미는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자기완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

66) 조영관 외, 앞의 글, 204쪽.

67) 위의 글, 204-205 쪽

68) 『가톨릭교회교리서』1928항.

69) 위의 글, 1929항.

70) 조영관 외, 앞의 글, 212-214쪽.

건의 총화”를 뜻한다.”⁷¹⁾ 공동선은 공동체의 목적으로서 “모든 이와 각 개인에게 속하므로 나뉠 수 없고, 함께 해야만 달성할 수 있고 증대할 수 있으며 미래에도 효력을 보존할 수 있다.” “한 개인의 도덕적 행위는 선을 행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처럼, 한 사회의 행위도 공동선을 이루는 것일 때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⁷²⁾ 이렇게 보면 공동선은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삶의 원리이자 추구해야 할 목적인 셈이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이유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더불어 사는 존재이므로 자기 자신 안에서는 완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선을 원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에만 집중해서 살려하지 않고, 자신을 초월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음을 뜻한다. 공동선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 특히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는 사람들의 복리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⁷³⁾

“공동선의 수행은 인간이 다양한 차원의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실천을 통하여, 기존의 사회생활에서 발견되는 의미와 진리, 곧 선을 끊임없이 추구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⁷⁴⁾ 개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동선의 문제는 관련이 된다. 교회는 그 이유로서 ‘공동선이야말로 사회생활의 의미를 이루는 요소이며 사회 자체가 존재하는 참된 이유이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친다. “인간은 다른 인간과 더불어, 다른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⁷⁵⁾에 그러하다. 그러므로 공동선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동선을 이루고 증진하는 데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셈이다. 또한 모든 사람은 공동선의 추구로 얻는 사회생활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5. 연대성의 의미와 가치

연대성은 사회교리의 인간관과 공동체관에 근거한다.⁷⁶⁾ 인간이 하느님 신비와의 관계와 창조의 질서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연대성의 원리는 우정(friendship), 사회적 애덕(social charity), 사랑의 문명(civilization of love)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했다.⁷⁷⁾ 연대성의 원리는 개인들 간에, 개인과 사회, 민족들 간에, 상호의존과 유대를 바탕으로 서로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이다.⁷⁸⁾ 연대성은 인간의 타고난 사회적 본성에 근거한 원리로서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전제로 일치를 향한 개인과 민족의 공동 노

71) 『간추린 사회교리』164항.

72) 같은 글.

73) YOUCAT 재단. 앞의 글, 88항.

74) 『간추린 사회교리』165항.

75) 같은 글.

76) 김우선, 앞의 글, 93쪽.

77) 박정우, 앞의 글, 62쪽.

78) 같은 글.

선을 말한다.⁷⁹⁾ 불평등, 빈곤, 부정의한 상황들은 심각한 형제애의 결핍과 연대적 문화의 결핍의 결과인 셈이다.

연대성의 원리는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 있는 존재”⁸⁰⁾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내 이웃의 가난과 굶주림에 내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연대성의 원리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이 속한 사회에 빚을 지고 있다는 인식을 기를 것을 요구한다.”⁸¹⁾ 한편 연대성은 “가깝든 멀든 그 많은 인간들이 겪는 불행을 보고서 막연한 동정심 내지 피상적인 근심을 느끼는 무엇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 항속적인 결의이다.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만인의 선익과 각 개인의 선익에 투신함을 뜻한다.”⁸²⁾ 막연한 동정심과 피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실천이 수행되는 원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그 사회 안에 축적된 “불가분적이고 필수적인 유산”의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는 인식⁸³⁾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연대성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는 연대성이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상호 협력의 원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⁸⁴⁾ 이에 대해 조현철은 “사회적 약자들이 일방적 도움을 받는 것은 연대성의 원리가 지향하는 공동선의 성취를 통한 개별 인격체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⁸⁵⁾

교회는 연대성을 실천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보여 준다.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모든 형태의 연대성의 도움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연대성,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연대성, 기업에서 근로자들 사이의 연대성과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연대성, 국가와 민족들 사이의 연대성 등이 그러하다. 국제적 연대성은 도덕적 차원의 요구이다. 세계 평화는 부분적으로는 여기에 달려 있다.”⁸⁶⁾

연대성의 중요성은 개인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집단, 민족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1986년 미국 가톨릭주교회의는 미국 경제에 대한 사회교서 즉 사회교리를 발표한 바 있다. 『모든 이를 위한 경제정의(Economic Justice for All)』라는 사목교서에서 미국 주교들은 신앙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소비자, 시민, 근로자와 소유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가난하거나 취약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지닌다.”고 밝힌 바 있다.⁸⁷⁾

79) 『간추린 사회 교리』, 192항.

80) 위의 글 193항.

81) 위의 글 195항.

82) 『간추린 사회 교리』, 193항.

83) 위의 글, 195항.

84) 조현철, 앞의 글, 69쪽.

85) 같은 글.

86) 『가톨릭교회교리서』, 1941항.

87) *Economic Justice for All* http://www.usccb.org/upload/economic_justice_for_all.pdf R김우선. 앞의 글, 95쪽에서 재인용.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과된 도전으로서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선택을 통하여 “자신을 위해서 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대변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며, 또한 (그 사회의)생활양식이나 정책, 사회제도가 가난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평가해야 한다.”⁸⁸⁾고 천명한 바 있다.

Ⅳ. 양극화 사회에서 가톨릭교육자의 실천적 역할

1. 자기초월을 지향하는 대화 교육의 실천

양극화 현상은 특정한 극을 중심으로 집단이 집락화하는 현상이다. 집락화 현상은 동질적인 것은 더 강해지고 이질적인 것과의 분리와 단절이 견고해져서 집단 간 문화 단절로 이어진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사후에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방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에 따라 양극화 시대의 교육에서는 개인과 집단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화 교육을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⁸⁹⁾ 진정한 대화는 집단의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문화적 소통이며 보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시작이고, 사회적 연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는 다양화 시대에 발생하는 문화 간 갈등과 불화를 문화 간 대화를 통해 극복하는 데 교육이 기여할 것을 권고해 왔다. 대화를 통한 갈등 극복에서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기초월을 추구하는 노력이며 이는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자기초월이란 온갖 형태의 자기중심주의와 민족중심주의를 벗어나려는 심리적 노력만이 아니라 정신적 종교적 열정으로, 개인과 사회의 통합적 초월적 발전에 대한 이해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⁹⁰⁾ “서로 대화를 나누는 문화들의 전망은 분열을 극복하려고 필요한 공동의 노력을 이끈다. 상호 학습의 틀 안에서 사회생활과 문화의 몇몇 근본 범주들(예를 들어 대립과 만남, 폐쇄와 개방, 독백과 대화)이 불러일으키는 변증법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⁹¹⁾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자기초월을 지향하는 대화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다양한 형식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 또한 특정 교육프로그램에서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실천될 때 효과적이다. 모든 교육에 적용되지만 대화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

88) 같은 글.

89) 손준중. 앞의 글. 34쪽.

90)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가톨릭 학교의 문화 간 대화교육: 사랑과 문명을 위한 조화로운 삶.』(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45항.

91) 같은 글.

교육자의 대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화 상대자를 이해하고,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행해지는 대화는 단기간에 습득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친교의 교육학 실천

가톨릭 교육에서 친교의 영성은 교육의 지도 원리로서 강조되고 있다. 교회는 친교의 원천이며 교회를 친교의 학교로 만드는 것은 새 천년기의 과제이다.⁹²⁾ 또한 친교의 영성을 증진하는 것은 가정, 학교와 교회에 부과된 과제이다.⁹³⁾ 양극화 사회가 보여주는 정의롭지 못하고 폭력 가능성을 내재한 위험한 현상은 부정과 갈등 그리고 상대를 외면하고 타인을 나와는 관계없는 타자로 남겨두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더 이상 나와 내가 속한 집단과 완전히 분리된 타자는 없다고 한다. 타인과 다른 집단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고, 내 집단과의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친교의 교육이 요청된다.

가톨릭 교육에서 친교를 원리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친교가 곧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한 마음의 관상을 가리키기 때문이다.’⁹⁴⁾ 가톨릭의 표현에 따른 친교의 영성이란 “주위의 형제 자매들의 얼굴에서도 삼위일체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친교의 영성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나의 일부인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럴 때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기쁨과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의 바람을 느껴 알며 그들의 요구에 마음을 쓰고, 그들과 깊고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친교의 영성은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것을 하느님의 선물, 곧 그것을 받은 형제 자매를 위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로 여길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친교의 영성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양보하며’, “남의 짐을 저 주고”(갈라 6,2),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붙어 다니면서 경쟁심과 출세욕, 불신과 시기심을 불려일으키는 이기적인 유혹을 물리칠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⁹⁵⁾

친교 영성의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한 믿음에 비추어 볼 때 분리와 단절이 가속화되는 양극화 사회에서 친교를 교육의 원리로 삼아 적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즉 친교 영성을 통해 나와 다른 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교의 영성은 가톨릭교육자가 가져야 할 영성이자 곧 가톨릭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영성이라 할 수 있다.

92)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새 천년기』(NOVO MILLENNIO INEUNTE 2001.1.6.), 43항.

93) 『가톨릭학교의 문화 간 대화교육 2013』, 48항.

94) 위의 글, 43항.

95) 같은 글.

3. 일치를 추구하는 교육을 통한 연대감 형성

가톨릭교육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교육은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 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에 “관계를 맺으시는 분으로 순수한 사랑 행위 자체이신 하느님의 신비를 간직한 그리스도교 전체의 핵심”⁹⁶⁾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치를 추구하는 교육은 소통을 단절하고 끊임없는 경쟁을 촉구하는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⁹⁷⁾ 일치에는 자기증여, 자기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 일치를 배운다는 것은 정의와 진리가 침해되는 모든 곳에서 다른 이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다.⁹⁸⁾

일치를 추구하는 교육은 세상의 발전을 돕는 사랑의 교육이기도 하다. 인간에 대한 긍정적 신뢰에 바탕을 둔 가톨릭교육에서는 “인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는 고유한 욕구”⁹⁹⁾를 갖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나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들이 맺는 관계의 중요성은 관계의 범위를 더욱 깊이 있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이것은 사회과학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의 초월적 존엄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형이상학이나 신학과 같은 학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¹⁰⁰⁾

4. 종교적 근본주의와 종교적 중립주의라는 양극화 사이에서 가톨릭교육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가톨릭학교가 갖는 사명은 복음에서 영감을 얻은 교육학을 통해 복음을 성실하게 증언하는 데 있다. 복음을 성실하게 증언한다는 것은 교육에서 존경과 경청, 우정 그리고 협력 정신의 태도를 키워나갈 수 있게 대화와 평화로운 교육을 실천하여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랑의 문명을 건설하는 교육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톨릭학교가 개인주의와 경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의 기대에 동조하게 될 때 가톨릭학교는 가톨릭학교라는 정체성을 잃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학교의 중립성을 요구하고 교육 분야에서 모든 종교적 언급을 금지하는 문화에서도 정체성을 잃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가톨릭 학교는 근본주의와 모든 것을 똑 같이 여기는 상대주의를 거부하고, 복음적 영감에서 받은 자신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룬 발전을 추구 받는다. 또한 가톨릭학교는 다른 이들을 만나는 길을 건도록 초대받고 있다. 가톨릭학교는 스스로를 가르치고 대화하는 법도 가르친다. 대화는 모든 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진지한 경청의 태도로 말을 나

96) 위의 글, 53항.

97) 같은 글.

98) 같은 글.

99) 위의 글, 54항.

100) 위의 글, 46항.

누고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진정성 있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시각을 흐리게 하거나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더 큰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존재 방식에 따라 언행일치를 이루면서 증언을 하여야 한다.¹⁰¹⁾

가톨릭교육 공동체의 유일한 목표는 “성숙한 사람, 소박하고 능력 있으며 정직한 사람, 충실하게 사랑할 줄 알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줄 알며, 장래의 직업을 사회에 대한 봉사로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양성하고 돕는 것이다.”¹⁰²⁾ 학교가 개인들이 각자의 정체성의 풍요로움과 문화 전통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기르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는¹⁰³⁾ 만큼이나 가톨릭학교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교육에서 교사는 가르쳐야 할 것이 많고 학생은 배워야 할 것이 많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 없는 것은 간과되기 쉽다. 종교교육, 인성교육 혹은 시민교육이 그런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공존의 능력’, ‘정의’, ‘공동선’과 ‘연대성’ 등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크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중요성을 시험과 관련해서만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톨릭교육기관들이 가톨릭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교육의 우선순위에 진리와 정의 그리고 사랑이라는 사회가치와 인간존중,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의 원리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잠재적 교육과정이나 영교육과정으로 남겨진 위의 가치들을 명시화 하여 교육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본다.

5. 책임감에 대한 교육

양극화 시대를 사는 가톨릭교육자들은 시대의 표징을 읽어 정의와 공동선을 추구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기르는 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두를 위한 정의’를 실천하는 즉 이웃을 돌봐야 하는 책임의식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책임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책임의 영어 단어는 ‘responsibility’인데 이는 곧 응답하는 능력(a response-ability)¹⁰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형식적인 교육과정 안에서 책임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교육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은 지식 전달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육의 과정에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영역이 통합이 되어야 한다. 좋은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이 교육이

101) 위의 글, 맺음말.

102) 같은 글.

103) 위의 글, 50항.

104) 조영관 외 옮김, 위의 글, 184쪽.

무엇에 관한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는데서 부터 시작한다고 한다.¹⁰⁵⁾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양극화 문제가 자신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부터 양극화 현상을 발견하여 그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실천 방안을 강구하는 접근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교리 방법론인 관찰, 판단, 실천의 단계를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자의 책임감 있는 삶의 모습들이다. 타인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고 정의와 공동선, 사회적 연대를 보여주는 교육자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교육내용이자 방법이라 하겠다.

V. 나가며

양극화가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고 사람들의 삶 안에서 시간을 두고 형성된 문화의 문제라 할 때 교육자의 교육적 역할에 국한하여 양극화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소극적인 접근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교리가 “세계는 자유와 지성으로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사회과학적으로 구조보다는 행위주체성을 강조하는 입장) 교회의 전통적 입장”¹⁰⁶⁾을 반영하고 있듯이 교육제도의 변화보다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보다 본질에 접근하고 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양극화 현상은 인간존엄성을 회복하는데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가톨릭교육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가톨릭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배우고 성찰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다.

오늘날 교육자들은 가톨릭교육에 대한 교회 문헌과 사회교리 문헌들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문헌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공간에 남겨진 지혜를 교육공동체로 가지고 나와서 세상을 읽는 도구로써 보다 많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105) 위의 글, 447쪽.

106) 김우선, 앞의 글, 92쪽.

참고문헌

- 교황 요한 23세. 『어머니요 스승』(MATER ET MAGISTRA, 1961. 5.15.),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교황 요한바오로 2세. 『가톨릭교회교리서』(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1.
- 교황 요한바오로 2세. 『새 천년기』(NOVO MILLENNIO INEUNTE, 2001.1.6.).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교황 요한바오로 2세. 『자비로우신 하느님』(DIVES IN MISERICORDIA 1980.11.30.).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5.
-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11.26.).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가톨릭 학교의 문화 간 대화교육: 사랑과 문명을 위한 조화로운 삶』.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 교황청 성직자성. 『교리교육총지침』(General Directory for Catechesis, 1997.8.11.).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2004).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 김우선. 「가톨릭 사회교리와 세계화」 『신학과 철학』 22(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013.
- 김원식. 「한국사회 양극화와 다차원적 정의. 사회와 철학 연구회 논문집」 『사회와 철학』 26(사회와 철학연구회. 2013).
- 박정우. 「가톨릭 사회교리에 비추어 본 생명과 건강 : 인간의 존엄성, 공동선, 연대성과 보조성을 중심으로」 『인격주의 생명윤리』 6(2)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6).
- 손준중. 「교육 양극화의 개념, 유형, 동인에 관한 탐색적 논의」 『한국교육학 연구』 12(2) (서울: 안암교육학회. 2006).
- 심현주. 「진리안의 사랑과 가톨릭사회론」 『신학전망』 168(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0).
- 이두휴. 「도시와 농촌간 교육양극 실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1(2) (한국교육사회학회. 2011).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Gaudium Et Spes, 1965.12.7.).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 조정환. 「인간의 공동체적인 관계성에 대한 고찰」 『가톨릭신학』 16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09).
- 조현철. 「용산참사 되짚기: 가톨릭 사회교리의 연대성과 보조성에서 본 한국의 도시 재개발」 『신학전망』 173 (광주: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1).
- 토마스 그룸. *Educating for Life*. 김도일 옮김. 『생명을 위한 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토마스 그룸. *Will There Be Faith?* 조영관 · 김경이 · 임숙희 옮김.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4.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한국 가톨릭 학교교육 지침서』, 서울: 가톨릭문화원. 2009.
- 홍은숙. 「교직관에 따른 전문직 교원윤리의 성격 재음미」 『교육철학연구』 33(3). (한국교육

철학회, 2011).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 센터’

http://www.cleankorea.net/bbs/board.php?bo_table=sub04_02&wr_id=6

YOUCAT 재단. 『가톨릭사회교리서 DOCAT:무엇을 해야 합니까?』.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6.

원고접수일 : 2016년 12월 20일 심사일: 2017년 2월 2일 게재확정일: 2017년 2월 10일
연구자소개: 김경이

- ① 전공: 교육학 / 소속 : 가톨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 ② 관심영역: 가톨릭 학교교육, 종교교육, 교사교육, 인성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 ③ 주요논저: 「가톨릭 신앙공동체 성인종교교육의 실천적 교육모형-sharing praxis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가톨릭의 종교교육」, 「종교수업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가톨릭학교 교사의 신앙·현신·가톨릭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 ④ E-mail: clara90@catholic.ac.kr
-

Abstract

The Role of Catholic Education to Overcome the Polarization: Focusing on the Role of Catholic Educator

Kim Kyungye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issue of polarization has become more serious across society. Polarization involves social conflicts and deepens social inequ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tholic Social Teaching about polarization and suggest the role of Catholic education in the polarized society. The question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meaning of the polarization phenomena and what are the causes of the polarization? Second, what are the suggestions of the Catholic Social Teaching about polarization? Third, what are the Catholic educators's role based on the Catholic Social Teaching? This research has reviewed the Catholic Social Teaching documents and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The causes of the polarization are economy of exclusion, idolatry of money, financial system which rules rather than serves human, inequality which spawns violence, and cultural challenges. To overcome the polarization, Catholic educators need to understand and try to practice as follows; the Catholic's view about the society, the value of justice, solidarity, and the common good. Based on the Catholic Social Teaching, Catholic educators are encouraged to practice dialogues for self-transcendence, to further practice of pedagogy of communion, to seek for unity, to deepen the identity of Catholic education, and active education toward sense of responsibility.

Key words: social polarization, solidarity, justice, Catholic social teaching, common good, Catholic Education. Catholic Educator